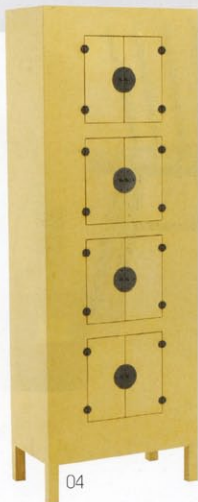




01



04



02

03

01 단앤딤 스튜디오의 박종화(왼쪽), 박준범. 02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 데스크. 03 한옥의 처마에서 모티프를 얻은 예비스 체어, 블루, 레드, 옐로, 블랙 컬러가 있다. 04 조선 시대 전통 장의 비례를 반영한 목 스트리치.

단앤딤 스튜디오

실용적인 '진짜' 가구를 만드는 듀오 디자이너.

에디터 이새미 포토그래퍼 왕태균(인물)
사진제공 www.dindip.com

'단앤딤'이라는 새로운 스튜디오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4인의 작가가 모여 가구를 매개로 자신의 디자인을 말하는 바오에서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한다. 공들여 만드는 작품은 아름답고 훌륭한 오브제로 탄생했지만, 가격대는 부담스러운 편이었다. 대중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디자인과 가격대의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 단앤딤을 오픈했다. 최근 디자인과 실용성의 경계가 모호한 '아트 피니처'가 유행인데, 우리는 반대로 아트와 디자인을 정확히 구별하려 한다. 오브제는 바오를 통해 보여주고, 좋은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진짜 '가구'를 제작하는 것이 단앤딤의 목표다. 하지만 바오에서 실용적인 오브제를 만들거나 단앤딤에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일 수도 있다.

어떤 이를 위한 가구를 만드는지 궁금하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싱글 남녀가 타깃이다. 디자인 면에서는 실고 직관적이면서, 밝고 화사한 컬러로 감성적인 코드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국내 원목 가구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다. 디자인은 공통의 작업이지만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박준호 디자이너가 주로 스케치와 컴퓨터 작업을 맡고, 박준범 디자이너가 금속공예를 전공한 경험을 살려 손으로 제작하는 일에 집중한다.

한국적인 분위기의 가구 디자인과 이름은 어떻게 완성한 것인가? 조선시대 목가구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디자인 스스로 활용했다.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다. '서 데스크'는 책을 보던 서안을 모티프로 하고, '목 스트리치'는 한국 전통 장의 비례를 따른다. 바퀴가 달린 '론 테이블'은 이동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회의 장소를 마련해준다. 단아한 테이블과 달리 의자는 경쾌한 컬러이며 전통 한옥 지붕과 기와의 형상을 띠고 있다.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갈 계획인가. 볼 모델들 든다면?

덴마크 '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헤이의 가구는 디자인과 품질,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 특히 다채로운 컬러 오스와 가구를 소개하는 방법에서도 그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배우려 한다.

2013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2월 6일부터 인사동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한다. 친하게 지내는 신지훈 디자이너도 참여할 예정. 앞으로 간헐한 수납장과 식탁, 일상 소품은 물론 상업 공간을 위한 가구도 제작할 것이다.

Friends 같은 바오 출신의 한성재, 위영호, 신지훈, 하이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한 박보미, 김보은, 김지연. Culture 매주 금요일은 단앤딤의 컬처데이. 지난주에는 함께 호림미술관에서 열린 미장품 목수의 작품전에 다녀왔다. Healing (박준범) 팔각정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잠들기 전 클래식 음악 듣기. 특히 '말랑샤터', (박준호) 목 음악가와 영화 평론가 이동진의 앨범 읽기. 영화를 본 뒤에는 곡 킬리시스트의 평가 비교해 본다.